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 평화의 도구

(제 172 호)

07년 12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올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이 세홍(바오로),sfo (562)860-6930  
 \*사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739-4226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E-MAIL

\*김 용철(도미니코)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올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 형제회 소식

### ■ 형제회 정기 월례회 일자 변경

내년 08년 1월 부터는 정기 월례회 모임을 매 월 4째 일요일에서 3째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4째 일요일에 성 토마스 성당 본당의 여러 행사가 겹쳐 여러 회원님들이 모임 참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 회계 정산 및 서약자 년회비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07년도 회계 정산을 위하여 그동안 밀린 회비를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7년도 현재 서약자는 년회비(Fair Share) \$40을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비를 지구 형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 형제회 총회 및 평의회원 선거

회헌 76조에 의거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정기 총회및 평의회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08년 3월 16일 (일) 셋째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08년 1월 정기 월례회는  
 1월 20일(일) 세째 일요일 입니다

### ■ 선거 관리 및 추천 위원회

내년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위원회 관리에는 김영배(요한) 형제가 담당하며 차기 평의회원 후보를 추천하여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김기수 신부님 방문

오늘 23일(일) 월례회에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방문하시며 또한 성 토마스 성당 24일(월) 성탄 저녁 8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 ■ 형제회 점심

지난 11월 월례회 점심은 이현일(어거스틴)+정숙(마가렛) 부부 아드님 결혼식 축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형제회 기부금

형제회 연말 행사를 위하여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숙 \$100, 정치영 \$100, 김성희 \$100  
 괄춘무 \$100, 이규성 \$50

## ■ 월보 담당

08년도 1월부터 월보 편집은 유근숙 율리아 자매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제회 초창기 이규성 바오로 형제가 처음 담당하시다가 그 다음 박용원 야고보 형제가 줄곧 15년 이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월보 편집으로 유 율리아 자매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소개- 14번째】

## 나는 누구 일까요 ?

나는 60대 초반입니다.

형제회에 가입한 동기는 90년대 본당 기도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좀더 깊은 영성을 찾고 있던 중에 박 바오로 형제님이 프란치스코회를 소개하며 “잔꽃송이” 영성 서적을 권유하면서 이 책을 읽고 1993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호기심이 많았으며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나의 인생에 각 단계와 환경에 따라 잘 반영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학생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고 미국으로 유학 와서 사회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인생진로가 비즈니스로 바뀌었다. 비즈니스 중에서도 “인사 관리” 전공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격은 논리적이고 이지적이지만 인간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인간의 정에 있기 때문에 정에 약한 것이 나의 약점인 동시에 강점입니다.

특기는 영적 독서안에서 새로운 영성과 새로운 사상과 생각을 발견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점입니다.

성인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예수님의 대한 열렬한 사랑, 수난과 육화 신비에 대한 감사와 찬미하는 성인의 영성이며 형제회에 대해 좋아

하는 점은 단순하고 겸손하면서 하나의 형제애로 일치하면서 서로 돕는다는 점.

형제회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모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매일 매일의 회개와 그 에 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러시아 선교1.2】

## 첫 성탄 카드

김용철 도미니코 신부, OFM

대림 2주일 시작을 알리기도 전에, 한국에서 온 첫번째 성탄 카드를 받았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 성탄 카드를 주고 받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기에..너무나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저는 새해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음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지 모릅니다-"

그렇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요즘 난 공사를 마치고도, 복지관을 열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와 사장이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아직까지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렇기에 내가 요즘 겪고 있는 현실도 어쩌면 어떤 연관성이 존재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난 올해 첫 성탄 카드를 받으면서, 정말로 오늘의 내가 있기 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나와 어떤 식으르든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순간의 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미리 나누고 싶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러시아에서 도미니코 형제

\*\*\*\*\*

## 대림절의 좌충우돌.

### 난 이렇게 산다오.

주님의 기다림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3일 축성식과 함께 개원식을 했던 우수리스크의 사회복지관 [타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서의 나라,,,러시아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줄은 몰랐다.

특히, 공식적으로 공사와 서류를 담당하기로 했던 회사가 "나 몰라라..." 하면서, 거의 사기에 가까운 무책임성으로 인해 마지막 준공 검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이곳에 첫 목사로 부임해, 현재는 건설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이 만든 회사다. 그러기에 더욱 가슴이 메어진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이 생겼다.

이런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사를 위해 러시아 전기 회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복지관 외부 전기 공사를 마친 지가 2년이 되었다. 어느날 전기에 문제가 생겨, 검사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전기 시설의 한 부분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였다. 문제는 전기 관리함이 복지관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모든 관리는 시의 전기과에서 하도록 모든 서류와 권한이 이임되었다. 심지어 그 관리함을 열수 있는 열쇠 역시 우리는 소지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의 전기과에 의뢰하여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의해서 분실된 내부 전기함을 시의 전기과에서는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라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3년전 설계도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기로 한 복지관의 마지막 서류 점검과정에서 우수리스크 시로부터 전력 공급에 관한 서류가 거부되었다. 이 서류는 우수리스크 보다 상위의 연해주에서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3년전에 전력 공급에 비해 우수리스크 시의 전력난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관에 공급하기로 한 전력의 양을 줄 수 없다는 우수리스크 시의 전기과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시는 연해주에서 우수리스크시의 전력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승인하였기에 연해주를 상대로 고소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연해주는 이미 승인한 것이니, 우수리스크 시의 결정이 잘못이기에 시를 상대로 재판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우수리스크 시와 연해주 사이에 낀 복지관의 전기사용에 관한 승인은 오리무중이다. 물론 이것 역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그런 와중에, 일층 화장실과 샤워실 하수도가 막혀 오전 중에 완전 물바다가 되더니, 오후에는 이층 화장실 변기의 물이 과다 공급되어 온통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얼마 전에는 3층에 물난리를 겪어서 한밤중에 내가 세탁기와 수도관 수리를 하는 일을 겪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침에는 미사를 봉헌하는 신부로, 낮에는 컴퓨터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거의 매일

컴퓨터 고치는 수리공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도원 주방장으로, 밤마다 고장난 수도관과 세탁기 고치는 수리맨으로, 그리고 운전사 겸 수녀원 공사에 현장 감독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팽파리 치면서 좌충우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아침 새벽에 커피를 마시면서, 원장 형제인 마리오(미국 출신)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고요하면서 즐거운 시간이다. 그리고 아침 미사를 봉헌하려 가는 어두운 새벽길의 찬 바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난 이렇게 산다오.

러시아에서 도미니꼬 형제

회원 소개-이현일(어거스틴) 형제

\*\*\*\*\*

## 【목 상】

#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삶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읍시다,  
자신감이 힘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삽시다,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시다,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시다,

참다운 나로 살아갑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합시다,

체면을 벗어 던집시다, 눈치를 보지 맙시다,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삶을 영위합시다,  
삶을 배우기 위해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좌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고통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좌절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고통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좌절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지우세요,

자신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좌절로 구속하지 마세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됩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슬픔입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좌절은 삶을 어긋나게 하여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암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랑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시다,

사랑은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기쁨을 나누는 삶,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기쁨을 나누며 일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